



우리말글잔치는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완연한 가을, 오감으로 즐기는 풍성한 책잔치

‘우리말글 책잔치’,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
‘파주어린이책마당’

‘가을은 곧 독서의 계절’이라곤 하나 “서늘한 바람과 울긋불긋 세상을 수놓은 단풍잎이 있는데 책은 무슨 책이냐”며 반문하는 이를 의식하는 것일까. 출판계는 가을을 맞아 새롭게 책의 의미를 정리한다. “가을이니 책읽자”란 상투적 제안은 내던졌다. 대신 다채롭고 풍성한 책잔치를 마련해 책의 즐거움을 오감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한글 사랑, 책사랑 고루 전한 ‘우리말글 책잔치’

지난 10월 2일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558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문화연대(대표 김영명)와 공동 주최로 제2회 ‘우리말글책잔치’를 개최했다.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마련된 책잔치는 좋은 우리말글이 담긴 책을 펼치며 우리말글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우리말을 사랑하자”는 구호성 행사에서 벗어나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 책잔치는 전시, 공연, 강연 등 총 6가지 테마로 펼쳐졌다. 우리말글 책잔치 마당에선 우리말과 글을 주제로 한 책 109권을 전시, 한글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들은 어린이 한글마당에서 만화영화 ‘한글탐정 둘리’를 시청, 표어짓기 대회 참여 등을 통해 한글날과 한글을 더 자유롭게 친숙한 방법들로 접했다. 이번 책잔치에선 특히 유명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우리말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방송 아나운서 손석희 씨, 전남대 미즈노 교수, 이화여대 최준석 교수 등이 강연에 나서 한글사랑을 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은 맛있는 말씀마당. 6일 강연자로 나온 전유성 씨는 시집을 많이 읽으라고 제안하면서 책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시를 짓는 시인들은 보름달을 보고 계란 후라이를 떠올리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집을 펼치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눈과 언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독서의 계절, 시집 한 권이라도 읽기를 당부했다.

‘파주 책마당’, 어린이들의 역동적인 책잔치

10월 15일부터 10일간 파주출판단지에선 ‘출판도시



'2004파주어린이책한마당'은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라는 주제로 48만 평 출판단지 공간에서 펼쳐졌다.



EBS '청소년북퀴즈왕선발대회' 제작진. 좌측부터 우은희, 김지형 작가, 김시준 프로듀서.

에서 놀며 배워요'라는 주제 아래 '2004 파주어린이책한마당'이 개최됐다. 올해로 두 번째인 '2004 파주어린이책한마당'은 자연과 어울려진 48만 평 출판단지 공간에서 책과 어린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출판도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도서전+기타도서전, 책마울 전시회, 놀이한마당, 책문화한마당, 세미나 등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건축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주목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서혜림, 김준성 등 국내 건축가들과 함께 어린이들은 '몸과 공간', '미로와 피라미드' 등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공간이 전하는 다채로운 세상을 만나보도록 한 것이다.

차분하고 정적인 책문화와는 별도로 책과 함께 즐기는 활동적인 이벤트도 마련됐다. 놀이한마당에서 펼쳐진 울버십니, 줄다리기 행사, 책마울 방송국 운영 행사 등은 책이 갖는 역동적인 성격들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 청소년 '독서왕' 가리는

2004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

입시지옥에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책과 만날 기회도 주어졌다. EBS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후원한 2004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가 참가신청을 마치고 필기시험 이후의 본선을 준비하게 된 것. 지난해에 이어 EBS 교육방송 특집으로 방영될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해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홍보창구가 없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시경쟁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은 청소년들의 독서열기를 실감케 했다.

대회는 '책키북키' (청소년책읽기운동 사이트 www.book-reading.or.kr)에서 선정한 도서 200권과 제작진, 그리고 중·고교 교사 각 2인씩 4인이 추천한 도서 20종 가운데 20권을 읽은 학생들이 필기시험을 본 후 본선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김시준 프로듀서는 "책 선정과 출제의 시간적 제약 등으로 고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진 못해도, 매년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1월 27일 E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책이 있는 현장-미니인터뷰

EBS청소년북퀴즈왕선발대회 제작진

'청소년들, 어른 못잖은 독서 능력 가졌더군요'

● 어떤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나?

미디어 분야는 물론이고 정통 인문분야에도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글쓰기가 발달해 있다는 데 우려와 불만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글이나 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래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독서의 의미를 심어주고자 퀴즈형식을 구상해 봤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아직 어린 중학생들의 참여도와 독서열기, 책에 대한 이해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제작진도 놀랄 때가 많다.

●● 시험과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고 진행되는가?

필기시험에선 총 50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지은이 이름을 적는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꽤 어려운 문제도 많다. 약 20명의 학생들이 뽑혀 본선이 치러지며, 구상중이긴 하나 작년에 호응이 컸던 1분 스피치 같은 코너도 생각하고 있다. '책은 곧 이해'라는 생각으로 만든 문제로서 가령 김구 평전과 마틴 루터 킹 평전을 읽으며 두 책 속 주인공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 올해는 후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프로그램 방영 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 4,0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책읽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문광부 산하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채널을 통해 받았다.

●●●●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는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다른가?

제작진 중에 <장학퀴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학퀴즈>를 진행하면서 실업-인문계 학생들 모두 참가하는 자리를 고민했다. 책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다. 대안학교, 검정고시를 본 학생,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책을 중심에 두고 대결을 벌일 수 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독서능력인증시험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도 고민했다. 제작진 역시 책 읽은 것을 계량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깊이 있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려 애쓰고 있다. 이해력과 상상력 등 다방면의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다.